

## 성령의 열매 구조는 이렇다 성산교회 남 육진 목사

(갈 5:22~23)

22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στὶν ἀγάπη χαρὰ εἰρήνη,  
 호 데 칼포스 투- 프뉴-마토스 에스틴 아가페- 하라 에이레-네-  
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, joy, peace,  
 오직 열매는 성령의 -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

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,  
 마크로두미아 흐레토테-스 아가도-수네-  
 longsuffering, kindness, goodness,  
 오래 참음과, 자비와 양선과

πίστις 23 πραύτης ἐγκράτεια·  
 III스티스 프라우테-스 앙크라테-아  
 faithfulness, meekness, self control;  
 충성과 온유와 절제-

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.  
 카타 토크온 토이우-토크온 우욱 에스틴 노모스  
 against such things there no is law  
 금지할 이 같은 것을 없 느니라 법이

國文：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

23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.

사역：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, 오래참음 친절 자선, 정직 23신사적 절제  
 이니; 따라서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.

원문에는 ‘오직’인 δε가 문두에 와서, “그러나”이다. 즉 갈5:22는 “그러나”로 시작된다.  
 5:19-21의 육체의 일들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이므로, “그러나”로 5:22가 시작된다.

δε는 문장의. 처음에 나올 수 없는 후치어(後置語)이므로 그 절의 둘째 번에 온다. 그리고  
 altima(최종절)에 (')accent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계속되므로 ( ` )grave로 되었  
 다.

“성령의 열매”：원문으로는 “그 영의 그 열매”이다. 그 영의 “그”란 정관사는 성령의 것  
 임을 지시한다. 그 πνεύματος에 두 acute가 있는 이유는 즉 altima에 ‘acute가 더  
 있는 이유는, 그 다음에 이 ἐστιν이 enclitic(전접어)가 있는 까닭에 ㄱ+ㄷ+encl. ㄱ+  
 ㄷ+encl. 인 까닭이다.

[cf. ㄱ+ㄷ+encl. → ㄱ+ㄷ+enclitic]

聖靈은 hebrew로 ַּיְהוָה Greek으로는 πνεύμα이다.

聖靈은 聖父(God) 聖子(Jesus christ)에게서 나오신다.

∴ Filiogue=(gue) and (Filio) from the son(그리고 성자에게서)이다.

∴ '성령 받았다'는 어느 사람이 예수는 불완전하고 자기만 완전하다고 떠드는 자는 악령  
 받은 자이다.

성령만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초월(超越)시킨다. 성령의 열매는 육의 일들과 대립된다.

성령의 열매'는 원문에서 복수 複數가 아니고 단수이다.

∴ (그런고로)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하나이다. 이는 一體九面이다.

∴ 그 가운데 하나를 맺지 못한 자는 다 맺지 못 한 자이다.

∴ 사랑과 희락과 등등의 ‘과’가 국문 성경에는 있으나,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없고,

영어에는 사랑, 희락, 화평, ... 로 되어있고, 원문에는 사랑 희락 화평, ... 로 되어있다.

∴(왜냐하면) 一體九面(일체구면)이기 때문이다.

### 원문에는 열매를 3씩, 3조로 묶었다

그 열매의 첫 group의 1조(trial)인 “사랑, 희락, 화평”은 기독교의 知性(지성)(생각)(mind)  
 에 대한 習慣(습관)들을 보다 많은 일반적인 면에서 包括(포괄)하는 것들이다.

다음 것의 2조인 “오래 참음 자비 양선 ”은 기독교의 이웃과의 교제에 영향을 주는 특별  
 한 質(질)들이요,

셋째 조인 “충성 온유 절제”는 첫째 조와 같이 일반적인 性格(성격)의 것들인데, 基督教  
 (기독교)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리(原理)들인 ‘정직, 紳士的(신사적)인 것, 節制(절제)이다.

### 1. ‘사랑, 희락, 화평’ ▶ 성령 받은 이의 기본 마음(자세)

그 構造(구조)는 層層(층층)으로 건설된다.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, 희락(喜樂)은 그 상  
 층의 구조이고, 和平(화평)은 그 冠(관)이다.

사랑(ἀγάπη)은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언어는 희랍어(希臘語)(greek)인데, 그 언어로 ‘사랑’  
 이란 단어가 4개 단어들 있다.

1) φιλία(philía) = 친구의 사랑

2) στοργή(storgé) = 부모의 사랑

3) ἔρως(eros) =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 배를 채우는

自我追求(자아추구)의 사랑(the self seeking love)

4) ἀγάπη(agape) =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 자아를 주는 사랑(the self-give love).

이런 ἀγάπη가 성령 열매의 기초가 되므로, 제일 먼저 나왔다.

(예; 방언은 성령열매가 아니다.)

**희락**(χαρά)은 χαρὰ는 χαίρω(기뻐하다)에서 유래되었고, 은혜란 χάρις도 이 동사에서 왔다.

∴(그런고로) 참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 갈 때만이 성(性)적 희락(喜樂)이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. (살전 5:16~18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묶어 놓은 것인데, 항상 기뻐 하라고 말씀하셨다.)

**화평**(εἰρήνη)은 경제적, 심리적, 정치적 등등의 화평이 결코 아니라,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(救贖)받고 하나님과 화목(和睦)할 때 만 이룩할 수 있다. 이 화평은 이세상이 줄 수도, 빼앗을 수도 전혀 없는 것이다.(엡 2:14에,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'우리의 화평' 이시다 고 말 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있다)

**2. '오래참음, 자비, 양선' ▶ 성령 받은 이의 다른 이들을 대할 때(자세)**

셋을 2번째 단계의 부류로 배열되었다.

**오래 참음**(μακροθυμία)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(injure) 밑에서 인내심으로 참는 수동적인 것이다.

이 μακροθυμία는 μακρός(long) + θυμός(mind) = 인내(patience) 오래 참음(long suffering)이다. 이 원어가 어원적으로 밝히 지적한 것 같이 마음(mind)을 굽직굽직(long)하게 쓰는 것이다. 마음을 길게 먹는 것 등이다. 순교자는 몇 분 몇 시간이면 된다. 그러나 오래 참음은 성격(性格)적 순교함을 뜻한다. 자비는 중성적이며 이웃에 대한 친절한 기질(氣質)이다.

**자비**는 χρηστότης인데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내 멍에는 쉽(χρηστός)고 와 동근 어다.

그러므로 자비는 타인에게 불의의 큰 짐을 떠맡기지 않는다.

비교 ; 불교의 자비는 무관심이다. 예수의 자비는 긴급적(緊急的)인 것이다. here and now (Hic et nunc) 지금 당장 내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에게 갖는 친절한 태도의 자비이다(고전 13:4).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(눅 10:25~37)의 자비이다.

**양선**(ἀγαθωσύνη)은 행동의 활동적 기준이다. 良善 = goodness(자선), beneficence(선행)(자비)=정력적(精力的)인 행동원리이다.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요, 양선은 적극적인 자선이다.

자비 = kindness, good will이고 ; 양선 = goodness, beneficence(자선(선행))이다.

**3. '충성, 온유, 절제' ▶ 성령 받은 이를 다른 이들이 대할 때(볼 때)**

이 셋이 3조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.

**충성**(πίστις)은 신앙의 수동적 의미인, 'trust worthiness(신뢰성) fidelity(충실) honesty(정직) 마태복음 25:23, 디도서 2:10,

비교 ; 롬 3:3 ※ πίστις(faith 신앙) 그 형용사 πιστός(faithfull)(계 2:10) 그러나 여기에 πίστις는 trustfulness(信賴性적인것), reliance(依持, 依賴), 다른 사람을 어느 사람이 취급할 때 신뢰적인 정직함인 것이다.(고전 13:7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)

**온유**(πραΰτης)( \* = 이중모음이 아님 표시)는 충성과 연결된다. 온유=겸손+ 힘을 겸한 십자가 밑에서의 溫柔(온유)이다. 영어로 gentleness이다. 우유부단이 아니다. A.V. 자비를 gentleness로, 온유를 meekness로 그러나 N.I.V. R.S.V. Living Bible 에서는 자비를 kindness로 온유를 gentleness로 번역했다. 온유는 신사적인 태도이다.

**절제**(ἐγκράτεια)는 克己(극기) (self-control) < ἐγκρατής(master of self) 자신의 주인=자기를 이김인데, 자신인 자기가 제일 어려운 상대다. 자기를 잘 다스림은 마치 식사와 같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는 것과 같다. 절제는 성령열매의 완성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있다. 모든 성공인들은 다 절제와 극기의 사람들이다.

절제 다음의 ' = 윗점은 영어의 :(colon) 또는 :(semicolon)인데 여기에서는 ; 이다.

**이 같은 것들**(κατὰ τῶν τοιοῦτων)= '이와 같은 질적인 것들에 반대하여' 금할 법이 없느니라(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)에서 '없다'가 강조됐다. 왜냐하면 ἔστιν의 ' (acute accent)가 첫 음절에 와서 강조 되었다. 율법은 금지에 목적이 있으나, 성령의 역사들에는 그 금지가 없다.

디모데전서 1장 9절, '--- δικαίω νόμος οὐ κεῖται' '-- 의인(혹은 의로운 것)에게는 법이 놓여 있지 아니 하나니'

갈라디아서 5장 18절, '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'( If ye be led by the Spirit ye are not under the law.)

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그 원문에는 νόμος에 정 관사가 없다. 그런고로 어느 법도 일체 없다는 뜻이다.

우리 자신들과 현대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5장 22, 23절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어 현대 성령의 일대훈선을 빚어내고 있는 이때, 참 성령 룬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.

성령의 열매의 구조 (갈 5:22~23)

▶ 성령의 열매

22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ἔστιν  
 호 데 칼포스 투- 프뉴마토스 에스틴  
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 
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성령의 이다(단수)

▶ 성령 받은 이의 기본 마음(자세)

ἀγάπη χαρὰ εἰρήνη,  
 이가페- 하라 에이레-네-  
 love joy peace,  
 사랑 기쁨 평안,

▶ 성령 받은 이의 다른 이들을 대할 때(자세)

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,  
 마크로두미아 호레토테-스 아가도-수네-  
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,  
 오래 참음 친절 자선,

▶ 성령 받은이를 다른 이들이 대할 때(불 때)

πίστις 23 πραΰτης ἐγκράτεια·  
 피스티스 프라우테-스 앙크라테아  
 honest gentleness self control;  
 정직과 신사적 절제이다

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  
 카타 톤 토이우-토운 우욱 에스틴 노모스  
 against such things there no is law  
 따라서 이것을 금할 법은 없다

國文：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 
 23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.

필자의 사역은 “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, 오래 참음 친절 자선, 정직  
 23 신사적 절제이다 ; 이것들의 거스를 법은 없다.”